

천국의 적대적 인수

2026년 8월 11일에 교황에게 보낸 편지는, 어떤 종교 기관도 공식적으로 약속한 적 없는 시간 안에 수신 확인을 받았다.

가능한 설명은 셋뿐이었다.

1. 교황청은 이메일을 받지 않는다.

2. 교황청은 평범한 신자를 위한 전용 주소를 제공하지 않는다.

3. 교황청은 전통적인 우편으로 배달되는 종이 서신을 선호한다.

그런데 무언가가 나에게 내가 신자들 축에 속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나는 동료들 축에 속했다.

어쩌면 다른 세기에서 온. 수단도 없이. 로만칼라도 없이. 눈에 보이는 권위의 표식도 없이.

그렇지만 수녀들이 운영하는 수도원 학교에서 8년을 보낸 뒤로, 나는 여전히 재고가 어느 정도 남은 믿음을 지닌 실천하는 가톨릭 신자라고 나 자신을 여겼다.

다음 날 아침, 집 전화기는 마치 무언가에 쓴 것처럼 굴었다.

사방에서 전화가 왔다.

모두가 같은 질문을 되풀이했다.

“봤어요?”

뭘 봐요?

“당신이 1위예요.”

어디서 1위요?

“웹에서요. 어디서나. 바티칸 위에. 신문들 위에. Wikipedia 위에. 당신보다 위에 있는 건 푸터뿐이에요.”

그 정보는 우스꽝스럽게 들렸다.

안타깝게도 그것은 사실이기도 했다.

점심 무렵 나는 진짜 성무성 재판정 앞에 서 있는 나를 발견했다:

내 아내와 내 딸.

심문은 곧바로 시작되었다.

“교황이 당신을 바티칸으로 초대하면 뭐라고 말할 거야?”

나는 웃었다.

이야기꾼이자 영업자이자 작가이자 이따금 직업적인 사기꾼으로서, 나는 대답이 모자라 곤란했던 적이 거의 없다.

그때 마침 친구이기도 한 내 은행 지점장이 예고 없이 우리 집에 나타나 필요한 서사의 가속을 제공했다.

나는 마침내 답했다.

“나는 성하께 이제 세 번에 걸쳐 역사를 만들 때가 왔다고 설명할 거야.”

침묵.

모두가 들었다.

“첫째, 교황이 되심으로써.”

잠깐의 멈춤.

“둘째, 예수 그리스도가 말끔히 면도한 사람이었고 따라서 Gillette가 가졌던 첫 동료였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심으로써.”

아무도 끼어들지 않았다.

즉각 체포되지 않은 데 힘을 얻어 나는 계속했다.

“셋째, Gillette를 집으로 데려와 그 회사를 바티칸의 보호 아래 두심으로써.”

방이 터졌다.

모두가 웃었다.

내 딸만 빼고 모두가.

그 애는 그 발상이 진지할 확률을 계산하고 있었고, 더 나쁘게는 그것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이해하려 애쓰고 있었다.

전략 자체는 꽤 단순했다.

교회는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마케팅 조직이 될 것이다.

면도날 한 팩마다.

면도기 하나마다.

전단 하나마다.

진열대 하나마다.

광고 하나마다.

예수의 이미지.

브랜드 충성은 즉시 신학의 문제가 될 것이다.

아무도 다시는 브랜드를 바꾸지 않을 것이다.

신자들은 교회의 면도날을 살 것이다.

교회는 소비자를 얻을 것이다.

소비자는 신자가 될 것이다.

신자들은 자선에 돈을 댈 것이다.

자선은 호의를 낳을 것이다.

호의는 더 많은 믿음을 낳을 것이다.

그 플라이휠은 영원해질 것이다.

그다음에 2단계가 온다.

교황은 적대적 인수를 개시할 것이다.

다른 종교를 상대로가 아니다.

월스트리트를 상대로.

Gillette는 영원히 증시를 떠날 것이다.

더 이상 주주는 없다.

더 이상 분기마다의 공황도 없다.

실제로 현실을 만든 사람들에게 그 현실을 설명해 주는 애널리스트도 더는 없다.

그 회사는 인류의 보호받는 유산의 일부가 될 것이다.

성직자 가운데서 직접 뽑은 열두 어부가 운영한다.

원조 경영 모델.

이천 년 전에 검증되었다.

결과는 역사적으로 유의미하다.

당연히 세제 쪽 사람들은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결코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어느 날 그들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갖고 있다.

그다음 날 그들은 알을 낳지 않는 거위를 갖고 있다고 믿는다.

그들이 알아채지 못할 것은, 그 거위가 갑자기 20억 명의 고객을 더 얻었다는 사실이다.

매출은 세 배가 될 것이다.

관리 비용은 무너져 내릴 것이다.

임원 계층이 통째로 조용히 사라질 것이다.

그중 다수는 보수가 아주 높았다.

그중 몇몇은 유능하다.

그 상관관계는 한 번도 결정적으로 입증된 적이 없다.

내 쪽에서는 개인적인 위험이 하나만 보였다.

교황이 동의할 수도 있다는 것.

그리고 그가 동의한다면, 나에게 어머니 Gillette를 위해 다시 일하러 돌아오라고 할지도 모른다는 것.

그 스타트업을 재출범시킬 만큼만.

그러면 즉시 익숙한 문제가 생길 것이다.

성하께서는 이미 내 값을 알고 계실 테니까.

1달러.

그것이 값어치여서가 아니다.

그것이 언제나 농담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위험한 농담이 그렇듯, 그 안에는 위안보다 훨씬 많은 진실이 들어 있었다.

Ferdinando